

부산시, 해빙기 취약시설 1328곳 안전점검

급경사지·산사태취약지 등 대상 안전등급 D·E등급 시설 별도 점검 토목·건축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



/부산시

부산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4월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먼저 시는 취약시설 1328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시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구·군이 지난 15일부터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5일까지 이어간다. 침하·균열·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성 여부 및 옹벽·석축 등 시설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지 1328곳은 유형별로 ▲급경사지 787곳 ▲산사태 취약지 386곳 ▲건설 현장 109곳 ▲옹벽 27곳 ▲사면 11곳 ▲기타 8곳이다. 점검 대상 외에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교량 2곳과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11곳과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기관별 점검을 별도 추진한다.

특히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 등에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지난 26일부터 건설 현장, 옹벽 등 해빙기 취약시설로 선정된 155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급경사지(787곳,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와 산사태 취약지(386곳,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빈틈없는 해빙기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구·군 등 유관 기관과 점검 회의를 선제 진행, 기관별 관리 대상과 대처 사항을 공유하고 상황 관리 현황을 사전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안전보건 의무 확보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급경사지를 신규 발굴하고 해빙기 안전 관리 요령 전파, 공익광고 제작·송출과 같은 홍보 활동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안전 기반 조성에도 노력해 근본적인 안전 관리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블랙튠그룹과 담양 딸기 시험재배, 면적 확대 방안 논의하며 지난 24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블랙튠그룹 본사에서 담양농산물 수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담양군 중동서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

담양군은 지난 24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블랙튠그룹 본사에서 담양농산물 수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담양군은 담양육성 딸기 시험 재배를 위한 우량모 공급과 기술 지원 방안 마련을, 블랙튠그룹은 시험재배 결과 공유 및 향후 재배 면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담양딸기는 미국, 홍콩, 몽골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랍에미르를 포함한 중동시장에서도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아이 1인당 최대 2.6억 단계적 지원” 사천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영암군,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한다

지역사회 육아 돌봄체계 구축 등 양육 패러다임 혁신하는 역점 시책 7개 분야 49개 사업... 2924억 투입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인당 최대 2억6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는 취지로 영암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계획(이하 ‘영암 아이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출산장려금’과 ‘가족 돌봄’ 중심의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과 ‘지역사회 육아 돌봄 체계 구축’을 축으로 양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려는 영암군의 역

점 시책이다. ‘영암 아이 종합계획’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환경 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 있다. 2028년까지 영암군 17개 부서가 2924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암군민이 아이를 낳으면 영암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다.

‘영암 아이 종합계획’에 따라 영암군은 아이 1명의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3462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원금은 최대치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236억으로 11개 분야 사업 진행 우주항공社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천시는 우리나라 우주항공 수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주항공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236억 원 사업비로 11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소재부품의 국산화 실현을 앞당기고 우주항공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항공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 ▲항공산업 지원단 운영 ▲우주항공분야 전략기업 육성지원 등이다.

또 ▲방산기업 육성지원 ▲항공우주품질인증 지원 ▲우주항공부품기업 경영진단 지원 ▲항공부품기업 시험인증 수수료 지원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된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관내 우주항공기업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

교통안전시설 확충... 120억 투입

경상남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2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대비(29건, 사망자 1명), 2023년(22건, 사망자 0명) 24% 감소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750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며, 도는 지난해에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우선 학교 인근 보도가 없는 구간에 학교용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7개소 조성한다. 학교 담장, 축대,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해 보도를 신설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종점 노면표시 등 191개소, 노란색 횡단보도 480개소, 스마트 안전시설 30개소를 설치해 시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신호기 26개소, 방호울타리 16개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등하굣길 통학환경을 지속개선해 어린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몽골 모노스그룹 회장 일행이 경북형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국제공동연구 및 산업교류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경북도를 방문했다. 앞줄 우측 네 번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청 전정에서 단체 기념촬영에 나섰다. /경북도

몽골과 ‘경북형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협력 논의

이철우, 모노스그룹 회장 접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루브산 쿠렐바타르(LUVSANKHURELBAATAR) 몽골 모노스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경북형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관련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모노스그룹 회장단을 비롯해 주한몽골대사관 서기관, 영덕군수, 대구한의대 총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경북도-영덕군-몽골 모노스그룹-대구한의대학교’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몽골 모노스그룹은 몽골 최초의 10개 비상장 기업으로 설립하였으며 제약, 유통, 코스메틱, 건설 등 36개 계열사와 25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는 몽골의 10대 그룹 중 하나이다.

이철우 도지사와 몽골 모노스그룹 회장은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국제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K-한방에듀팜 단지 조성(큐브형 스마트 식물공장)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국제공동캠퍼스 설립에 관해 논의하며 이후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북(경북)=이성호 기자 leesho0412@

하동군 섬진강 쌀 美 수출 선적식 성료

하동군은 27일 하동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주최로 ‘별천지하동 섬진강 쌀’의 미국 수출을 위한 첫 번째 선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적된 쌀은 총 35톤으로, 약 5만 3000달러(약 7059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쌀은 국내 최대 농산물 수출 기업인 희창물산이 운영하는 ‘H-Mart’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170억 발행

포항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카드·모바일형 포항사랑상품권(이하 포항사랑카드) 170억 원을 발행해 3월 상시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활력을 위해 사용과 충전이 편리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고 부정 유통도 방지할 수 있는 포항사랑카드 170억 원을 발행해 내달 4일부터 7% 할인판매로 진행된다. /포항(경북)=이성호 기자 leesho0412@

안동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40억 투입

안동시는 근로 능력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33억 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16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해 200여 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7억 원을 지원한다.

자활사업은 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으로 구분되며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하는 근로유지형 외 다른 사업은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